

##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교환과 관계만족도: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김 현 주<sup>†</sup>

중앙대학교

교환이론과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 간에 교환되는 자원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과 24세미만의 군대를 필하지 않은 대학생자녀 600명과, 이와 같은 기준의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 6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녀와 어머니 집단 모두, 교환관계가 형평적일 때보다 내가 받는 교환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어머니집단의 경우, 동거를 원하는 집단이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보다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이 적다. 반면에 자녀집단은 동거를 원하는 집단이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보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다. 현재의 불균형한 교환관계를 장기간에 걸친 호혜성으로 상쇄한다고 가정할 때, 동거를 원하는 어머니 집단은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비호혜성에 의해 현재의 관계만족도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동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집단의 관계만족도는 현재의 형평성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자녀들의 관계만족도는 현재의 형평성이나 장기간의 호혜성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녀들은 현재 어머니로부터 자원을 많이 받으면 자신이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노후부양의사를 조건으로 어머니 집단과 자녀집단간의 관계만족도와 교환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집단에게는 노후부양의사가 조절변수로 작용하지만 자녀집단에게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자원교환, 청소년 자녀, 어머니, 관계만족도, 노후동거

\* 이 논문은 200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후에 성장한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낮아지는 출산율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자녀의 양육부담을 상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부모들이 자녀양육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어떤 관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관계와 만족도간의 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Homans, 1950) 긍정적 감정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간의 친밀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친밀성이 사람들간의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간에는 집단 의식이 생기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동시에 이러한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생겨, 이들이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교환된 자원이 쌍방간에 균형을 이루게 되면 쌍방은 그 교환관계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Sprecher & Schwartz 1994). 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호혜성이 지켜

지지 않는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 균형을 이루는 방식은 즉각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긴 기간에 걸쳐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생을 걸쳐 많은 자원이 교환된다. 부모-자녀 관계의 각 영역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둘 간의 교환방식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교환이론에서는 대인관계에서 특정영역의 물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자원은 다른 영역의 자원으로 이동한다(Klein & White, 1996; Roloff, 1981, 1987)고 본다. 부모-자녀 사이에서 애정과 같은 자원은 개인에게 보상과 투자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Rubin, 1972), 주고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있다(Walster et al, 1978). 따라서 부모-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간절히 원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사랑만큼 돌려받기를 원한다(Hatfield et al., 1985). 교환이론 중에서도 교환되는 자원의 형평성이나 호혜성의 개념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형평성이론(equity theory)이다. 형평성은 나의 비용과 이득의 비율이 상대방의 비용과 이득의 비율과 같을 때 달성된다(Adams, 1965). 만일 이 관계에서 형평성이 깨어지면 긴장이 생기며, 과도한 이득을 얻는 쪽이나 손해를 보는 쪽이나 모두 긴장을 느낀다(Walster et al., 1978).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양자 모두가 얻는 것이 있다고 느낄 때, 이 관계는 유지된다(Roloff, 1981)고 한다. 공리주의적인 교환이론과 달리 형평성이론을 친밀한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착취하려는 의도를 갖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서 호혜적 행동을 한다(Peterson, 1986)고 본다.

부모자녀관계는 교환관계의 균형이나 호혜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위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호혜성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적 교환을 통해 호혜성을 달성하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 호혜성을 달성하느냐의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의 경우, 부모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차원의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자원에 한정하여 동일한 차원 내에서의 형평성(tit-for-tat)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차원의 자원들이 교환되면서 투자와 보상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교환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범주화는 포어(Foa, 1973)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의 6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 범주는 구체성과 상징성 차원과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상대방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자녀간 형평성은 서로 다른 범주의 자원 교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원까지 포함한다. 근대사회 이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통해 얻는 것은 주로 양육의 기쁨, 자녀로부터의 애정과 존경, 자신의 영향력 발휘의 기회, 자기 발전 및 성장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eWitt, 1992; Hoffman & Manis, 1979; Lamanna, 1977). 전통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가 수행해 온 도구적인 기능은 많은 부분 사라졌지만, 부모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주는 존재

로서의 자녀의 의미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엘킨드(1999)는 근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만족에 한정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Skolnick(1979)은 “친밀한 환경(Intimate Environment)”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자관계도 서로에게 애착을 갖는 2자관계라고 한다. Zelizer(1985)는 “매우 귀중한 자녀의 값어치(Pricing the Priceless Child)”라는 글에서 오늘날 자녀의 존재가 경제적으로는 무가치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 교환되는 자원에 정서적인 지원을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면,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중요한 자원의 공급처로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서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수혜할 수밖에 없는 쪽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사적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인 자원에 대한 높아진 기대만큼 자녀의 자원도 부모자녀관계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김의철 등은(2005) 부모들이 자녀의 심리적 가치, 즉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사랑과 애착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부모-자녀관계는 시대적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는 오늘날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성의 욕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 속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정서적 충족감을 촉진하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나 부부간의 친밀성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직업적 경력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아실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mbry, 1992). 둘째, 생활세계의 다원화로 인해 부모 자녀간의 접촉의 기회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화, 부모의 장거리 통근, 어머니의 취업, 자녀 양육의 사회화 등은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들이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정서적인 지원이나 애정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신 자녀의 또래집단, 학교, 각종 미디어가 부모의 위치를 잠식하고 있다(Bronfenbrenner, 1970).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 자녀보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부모들의 만족도를 가장 낮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Steinberg and Silverberg, 1987). 가족이탈성향이 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고(이영숙, 고성혜, 1994),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의논하는 대상으로 부모 대신 또래를 지목하고 있다(한국청소년학회편, 1999).

이와 같이 자녀의 가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주장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환되는 자원 중에서 어떤 자원들이 부모자녀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 이러한 자원이 교환되는 방식이 단기간의 호혜성이라는 원칙에 의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니면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방식의 호혜성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단기간에 호혜성의 원칙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이 원칙이 달성되면 부모자녀관계는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고, 자녀는 성장하여 독립한 이후에 연로한 부모에게 부양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간 자원교환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자녀간 교환의 호혜성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보고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부양과 관련된 보상과 대가를 중심으로 관계만족도나 스트레스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한국의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자녀세대의 입장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부양에 대한 의식, 부양부담, 부양스트레스, 노부모를 부양함으로 얻어지는 보상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김명자, 안선영, 1996; 서소영, 김명자, 1998; 윤순덕, 한경혜, 1994; 정혜정, 서병숙, 1998; 한경혜, 윤성은, 200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를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들도 있고(윤현숙, 2003; 조병은, 신화용, 1992),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가 나이 들었을 때 부양의식과 피부양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영주 외, 2004; 김윤정, 이창식, 2003; 이주연, 정혜정, 2003; 조운주, 이숙현, 2004).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호혜성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연로한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들어간 부모의 감정적, 물질적 투자를 보상하는 장기간에 걸친 호혜성의 유지가 더 이상 당연한 형태가 아니다. 부모들은 연금 등의 형태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자신들이 현재 자녀에게 투자한 자원이 자녀로부터 부양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김영주 외, 2004; 김윤정, 이창식, 2003; 이여봉, 이미정,

2003). 반면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투자되는 자원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가족해체의 경향은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이보다 어린 자녀들보다 부모와의 자원교환에서 보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의존적인 미성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보호와 양육, 의존과 복종 등의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가족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장기간에 걸친 호혜성이 아니라 단기간에 걸친 호혜성 내지 최대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환관계로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교환 방식과 이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동이나 유아에 비해 부모와 자녀사이에 양방향적인 교환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Lollis and Kuczynski 1997; Manke and Plomin, 1997).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모두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양자 모두 상대에 대한 투자와 보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현재의 부모자녀관계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의 증가하는 자율성은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받던 많은 서비스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Noller, 1994). 즉 부모의 책임이 자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고받는 자원의 비율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발달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교환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점 형평성에 도달하게 되고, 관계 만족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자율성의 발현을 최대한 늦추도록 작용하고 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모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들은 가족 내 책임을 면제받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몰아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자원의 교환이나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부모에게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가 양방향적인 교환이 가능한 시기가 청소년시기라고 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중학생부터 24세 미만의 대학생까지 해당) 자녀와 부모가 서로 주고받는 자원교환과 이들간의 관계만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들의 자원교환의 정도를 알아본다. 현재의 시점에서 자원교환에서 자신이 많이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를 알아본다. 만일 형평성보다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불공평한 관계가 부모의 노후부양의사에 따라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장기간의 걸친 형평성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불공평한 부모(어머니)와 자녀간 교환관계는 현재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이전의 부모자녀간 장기간 호혜성에 관한 연구들은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교환관계와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도를 본 것이며, 자녀

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기대가 현재의 자원교환양상과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동거의사가 현재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교환양상과 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노후동거의사는 현재의 비균형적 교환관계나 비형평성인식을 장기간에 걸친 호혜성 원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노후동거의사여부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교환관계나 형평성 인식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자녀간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위에서 언급한 교환되는 자원의 양, 형평성 인식, 노후동거의사 이외에도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대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자녀를 가문을 이어가는 사회적 가치로서 인식하기(김의철 외, 2005)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딸이 정서적으로 부모와 더 가깝고(Shehan & Dwyer, 1989), 모녀의 결속력이 다른 가족관계보다 강하다(Rossi & Rossi, 1990)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노후부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주로 노인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강하고, 부양부담으로 인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주연, 정혜정, 2003). 그러나 장남들이 여전히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임춘희, 1988),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일관된 차이를 보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차별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노후 피부양관에 대한 설명변인이 다르고(김윤정, 이창식, 2003), 연령이 낮을수록 효행 의지가 약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를 위한 희생정신이 약하다(김경신, 1998; 임인혜, 1987).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족이탈성향이 강해지며(이영숙, 고성혜, 1994), 자녀가 청소년시기에 도달하면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진다(Steinberg and Silverberg, 1987)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자녀의 연령대와 부모자녀간 만족도는 차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으며(현은강, 1994), 취업한 어머니가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를 높인다(김경신, 199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영향은 일정치 않아서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Steffensmeier, 1982)도 있고 만족도가 높다(변경화, 1999)는 연구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배경변수를 고려한 모형을 만들어 위에서 언급한 교환방식과, 형평성 인식, 노후부양의사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우선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자원의 교환방식이 형평성에 가까울 때 관계만족도가 높은지,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을 때 관계 만족도가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문제는 현재의 교환방식이나 형평성 인식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후동거의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이번 연구에 사용된 표본<sup>1)</sup>은 600명의 청소년(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과 600명의 청소년 자녀들과 동거하는 어머니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중학교 재학이상의 자녀이며 대학생은 만 24세 미만의 군 미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성별을 300명씩 동수로 하였다. 자녀 집단은 중학생이 200명, 고등학생이 204명, 대학생이 196명이다. 어머니집단에서 자녀가 중학생인 대상은 228명, 고등학생인 대상은 190명, 대학생인 대상은 182명이다. 표집된 지역은 서울과 5대 광역도시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이다. 서울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였다. 5대 광역도시에서는 자녀 75명씩, 어머니 75명씩 총 750사례가 추출되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자녀 225명, 어머니 225명으로 450명이 추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으며, 면접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면접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05년 3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및 절차**

**자원의 교환척도**

교환되는 자원은 Foa(1973)의 자원이론에 근

1)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분석변수의 기초통계

	구 분	계
교급	중학생	428 (35.7%)
	고등학생	394 (32.8%)
	대학생	378 (31.5%)
성별	남학생	609 (50.8%)
	여학생	591 (49.2%)
어머니의 취업상태	미취업	574(47.9%)
	취업(시간제 포함)	501(41.7%)
	기타	124(10.3%)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88(7.3%)
	고등학교 졸업	842(70.2%)
	대학교 졸업이상	270(22.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가난	116(9.7%)
	가난한 편	275(22.9%)
	그저 그렇다	491(40.9%)
	부유한 편	223(18.6%)
	매우 부유	77(6.4%)
교환척도	자녀의 척도평균	2.95(sd=.33)
	어머니의 척도평균	3.02(sd=.33)
구체적 자원교환	자녀의 척도평균	2.98(sd=.34)
	어머니의 척도평균	2.97(sd=.35)
상징적 자원교환	자녀의 척도평균	2.93(sd=.39)
	어머니의 척도평균	3.06(sd=.38)
교환형평성	5점 척도평균	3.13(sd=.99)
노후 거의사	비동거	766(63.8%)
	동거	434(36.2%)
전반적 만족도	보통이하	181(15.1%)
	약간 만족	266(22.2%)
	만족	753(62.7%)
합 계		1,200 (100%)

거하여 6개의 자원범주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6개의 범주는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와 애정 자원이다. 이중에서 서비스, 물품과 금전자원은 구체적 자원<sup>2)</sup>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 지위와 애정자원은 상징적 자원으로 분류하였다<sup>3)</sup>. 같은 범주 내에서도 교환되는 자원에는 긍정적 자원과 부정적 자원이 있다.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긍정적 자원과 부정적 자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환되는 자원은 행동의 형태로 표현되도록 서술하였다. 교환된 자원에 대한 느낌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교환상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화된 형태의 자원교환을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교환되는 자원에는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와 자녀가 주고받는 자원이 자녀와 어머니에게 모두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자원 범주들이 있으며, 표본의 대상이 자녀와 어머니가 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자원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녀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원과 어머니에게는 특정한 자녀로부터 받은 자원을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자녀나 어머니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되어 있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사전조사와 Foa(1973)의 연구를 기초로 진행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Rettig et al., 1993)을 기초로 6개 자원 범주에 대한 항목들을 설정하고, 1차 조사<sup>4)</sup>(자녀 150명, 어머니 150명)를 통해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거쳐 2차 조사를 위한 항목을 선정하였다<sup>5)</sup>.

구체적 자원 항목으로 최종 선정된 서비스(일), 물품, 금전과 관련된 항목은 자녀용 15항목과 어머니용 16항목이다. 서비스(일) 영역에 포함되는 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자녀는 “내 일을 해준다,” “아플 때 보살펴 준다,” “먹을 것을 챙겨준다,” “부탁한 일을 해주지지 않는

2) 6개의 자원범주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구체성과 상징성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축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축은 특정한 관계에 한정되느냐 아니냐와 관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에 한정된 교환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6개의 자원범주를 구체성과 상징성의 축에 의해 분류하여 자원의 성격에 따른 관계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3) 6개 범주의 자원교환이 관계만족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회귀방정식에 6개 범주의 자원교환이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VIF 계수가 1.639에서 2.331사이의 값을 가지며, condition index가 16이상에서 36 정도의 값을 가짐에 따라 회귀방정식에 6개의 범주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개 범주를 모두 합산한 척도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물품, 금전자원을 구체적 자원으로 합산하여 척도평균값을 계산하고, 정보, 지위, 애정자원을 상징적 자원으로 합산하여 각각을 별개로 회귀분석 하였다.

4) 1차조사는 어머니와 자녀가 한 가족인 대응표본이다. 대응표본과 아닌 표본의 통계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이나 전체표본에서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어 사례수가 많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응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기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5) 척도개발에 관한 자세한 과정은 한국조사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교환척도 개발, 2005. 12.9).

다,”와 “아침에 학교에 늦지 않도록 깨워준다”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내 일을 해준다,” “주물러주거나 안마를 해준다,” “가사를 거들어 준다,” “심부름을 시켜도 하지 않는다,”와 “자기 방 정돈을 한다”로 구성된다.

물품과 관련되는 자원에는 자녀와 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쓰도록 강요한다,”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쓴다,”와 “나의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가 측정에 사용되었다. 자녀에게는 추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사 주신다”이며, 어머니에게는 “어떤 물건은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와 “나만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금전영역의 측정을 위해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집안 형평에 비해 돈을 많이 쓰신다”는 항목을 물어보았고,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돈을 쓸 데 없는데 쓴다”는 항목을 물어보았다. 이외에 자녀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용돈을 나에게 줄 때가 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화를 내신다,” “나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신다,”와 “내 맘대로 돈을 못 쓰게 하신다”는 항목을 물어보았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돈을 아껴 쓴다,” “알아서 저금을 한다,” “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와 “부모를 속여서 돈을 타낸다”는 항목을 물어보았다. 구체적 자원의 항목들을 신뢰도 검사한 결과 어머니는 16항목의  $\alpha$ 값이 .795이며 자녀는 15항목의  $\alpha$ 값이 .746였다.

상징적 자원에 해당하는 정보, 지위와 애정 범주의 측정을 위해 최종 선정된 항목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18항목이다. 정보자원 영역에서는 자녀와 어머니에게 공통으로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가족의(자신에게) 중요

한 일과 관련하여, 내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이야기 할 때, 싫은 티를 낸다”를 물어보았다. 이외에 자녀에게는 추가로 “나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해 내게 알려주신다,”와 “내 전화를 엿듣거나, 편지나 일기장을 몰래 읽는다”를 물어보았으며, 어머니에게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돌려 댄다,” “대신 받은 전화 메시지나 우편물을 꼬박꼬박 전해 준다,”와 “내게 성적표를 보여준다”를 추가로 물어보았다.

지위자원은 자녀와 어머니에게 4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측정하였다. 공통항목에는 “나를 사랑스러워한다,” “잘못하고 나서도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준다,”와 “다른 형제나 내 친구들(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무란다(비난한다)”이다. 자녀에게는 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질문하였으며, 두 문항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신다,”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못 할 거라 여기신다”이다. 어머니에게 추가된 질문항목은 “밖에서 일을 저질러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와 “공부를 잘해서 뿌듯하다”이다.

애정영역의 자원을 측정한 6개의 항목은 “나에게 친밀하게 대화하신다,” “내게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하신다,” “나를 껴안거나,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하신다,” “내 앞에서 문을 콧 닫거나, 물건을 던진다,” “나와 같이 있는 것을 피한다,”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이다. 세 가지 범주에 걸친 상징적 자원의 신뢰도검사 결과, 어머니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1(a)이며 자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4(a)이다. 구

체적 자원과 상징적 자원을 통합한 교환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어머니는 .866(a)이며 자녀는 .850(a)였다.

### 형평성인식과 노후부양의사, 전반적 관계 만족도

어머니나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의 정도(양)를 측정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교환자원이 내가 상대방에게 준 교환자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평하다고 느끼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항목을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3점이 형평하다는 인식이고 1점과 2점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관계이며, 4점과 5점은 나에게 더 유리한 관계를 나타낸다. 이 항목의 평균은 3.13이며 표준편차는 .99였다. 노후 동거의사를 묻는 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어머니에게는 선택한 자녀와 동거하겠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는지 물어보았다. 자녀에게는 “내가 모시고 살겠다”와 이외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동거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766명, 표 1)가 더 많았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매우 불만”에서부터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5.6이고, 표준편차는 1.09였다.

### 개인의 인구학적 변수

개인의 속성변수로서 성별과 자녀의 교급을 측정하였다. 가부장적이고, 부계중심적인 한국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은 가변수 처리하여 여자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자녀의 교급을 측정하였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양상이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대학생을 기준변수로 하고 두 개

의 가변수로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을 만들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의존적이며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간제 취업을 포함한 어머니의 취업과 미취업을 구분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미취업을 기준변수로 삼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구분하여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항목은 어머니에게는 월평균 가구 소득을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5개 선택범주를 주어 물어보았다. 자녀는 가족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자녀에게는 “매우 부유하다”에서 “매우 가난하다”는 항목으로 5개 선택범주를 주어 측정하였다.

## 결 과

### 세대별, 노후동거의사별 평균 비교

어머니 집단과 자녀 집단의 관계만족도와 교환방식 관련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2). 자녀들이 어머니들에 비해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6개 영역의 자원교환을 총합하여 평균을 낸 교환척도와 상징적 자원척도의 평균값이 어머니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만족도는 자녀에 비해 낮

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형평성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형평성을 넘어 더 많은 자원을 받아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만족도와 교환정도와와의 관계가 직선적 관계가 아닌 곡선적 관계인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였다. 곡선적합도 검증결과 곡선적합성의 가설을 부정하여 선형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6개 자원범주를 통합한 척도와 구체적 자원척도, 상징적 자원 척도 모두 관계만족도와 선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으면 관계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변수관계의 곡선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다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상대방으로부터 거의 받는 자원이 없는 집단과(M=4.69), 균형적 집단(M=5.34), 많은 자원을 받는 집단(M=6.06)으로 구분하여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F=146.675, p<.001),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많이 받을수록 관계만족도의 평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통해 선형적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부모의 노후에 자녀와 또는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집단과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어머니와 자녀를 통합하여 평균비교를 하면 동거를 원하는 집단이 비동거 희망집단보다 관계만족도가 높고, 구체적 자원의 교환에서 더 많이 수혜하고 있다.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보다 관계만족도가 높고, 전반적 자원과 구체적, 상징적 자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받는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자녀와 노후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집단들이 동거를 희망하는 집단보다 자녀들로부터 더 많

은 자원, 특히 구체적인 자원을 받고 있다. 자녀와 노후에 동거를 원하는 어머니들보다 동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녀와 어머니의 상반된 경향은 향후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 자녀간 동거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이 예상된다. 자녀들은 현재 어머니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으면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한다. 전반적인 관계만족도가 높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계속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집단은 현재의 관계에서 자녀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는 경우에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동거를 원하는 자녀집단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교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걸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어머니 집단은 현재의 유리한 관계를 이 상황에서 종결하고자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미 자녀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후에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서 형평성을 이루려는 의도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형평성 인식에 대한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하였을 때, 현재의 교환방식과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에 생기는 변화를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 2의 자료를 기초로 그래프를 그렸다. 그 결과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경우에 노후동거의사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그림 1에서 그림 4).

표 2. 어머니와 자녀, 동거와 비동거에 따른 평균비교

	만족도	교환척도	구체적 자원교환	상징적 자원교환	형평성
자녀	5.72	2.95	2.98	2.93	3.09
어머니	5.48	3.02	2.97	3.06	3.18
t-value	3.936***	-3.603***	.038	-5.943***	-1.637
자유도	1198	1198	1198	1198	1198
전체집단					
비동거의사	5.47	2.98	2.95	3.00	3.17
동거의사	5.83	3.01	3.02	3.00	3.08
t-value	-5.604***	-1.405	-3.005***	.086	1.513
자유도	1198	1198	1198	1198	1198
자녀집단					
비동거의사	5.47	2.84	2.88	2.81	3.08
동거의사	5.86	3.01	3.03	3.09	3.09
t-value	-4.330***	-6.256***	-5.440***	-5.825***	-.212
자유도	598	598	598	598	598
어머니집단					
비동거의사	5.47	3.03	2.98	3.07	3.20
동거의사	5.57	2.98	2.89	2.98	2.94
t-value	-.640	1.788*	1.702*	1.578	1.760*
자유도	598	598	598	598	598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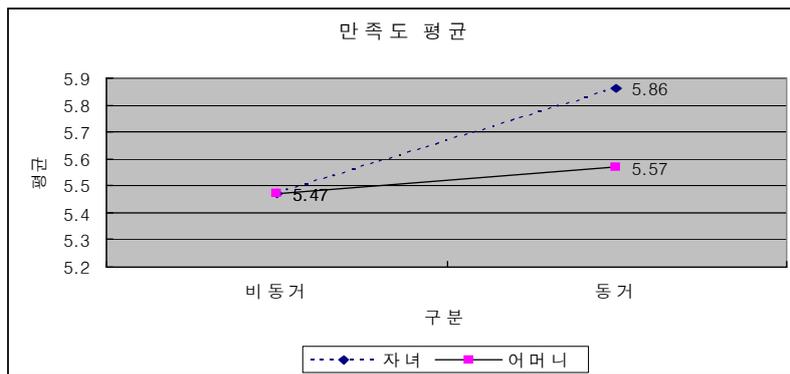


그림 1.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만족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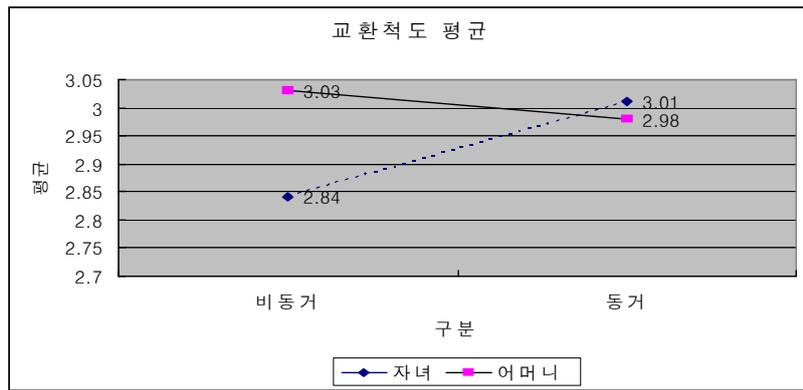


그림 2.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교환척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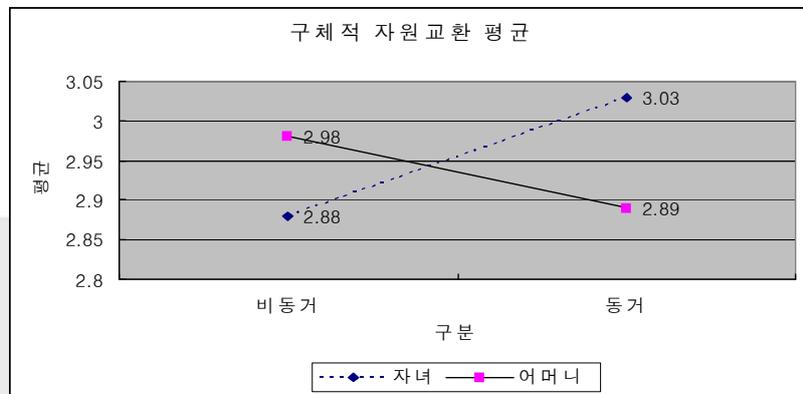


그림 3.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구체적 자원 교환척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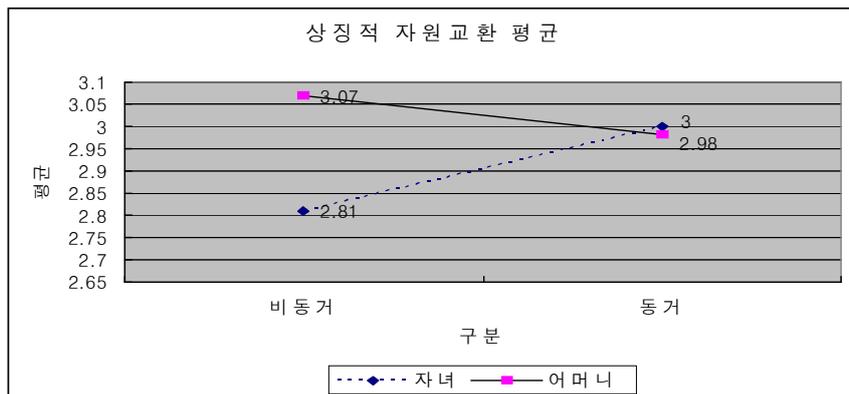


그림 4.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상징적 자원 교환척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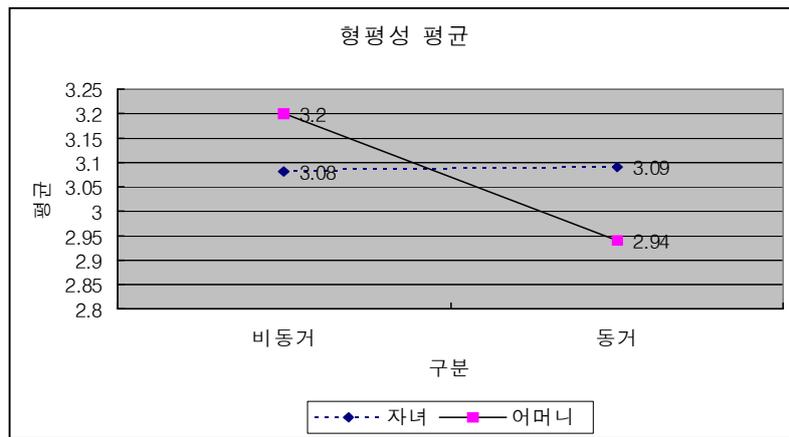


그림 5.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형평성 인식비교

자녀와 어머니집단은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교환척도와 구체적 자원교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생겨 노후동거의사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2, 그림 3). 자녀는 이외에도 만족도와 상징적 자원교환에서도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노후동거의사에 따른 차별적 관계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림 4). 다만 현재의 형평성 인식에서는 자녀보다 어머니집단의 경우 노후동거의사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5).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교환척도와 만족도의 관계형성을 노후부양의사와 관련지어 분석한 것이고, 단일 항목의 평균비교를 통한 분석이므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노후동거의사의 조건에 따른 조절변수적 영향에 대해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 세대별 관계만족도 영향요인

##### 자원교환, 형평성과 관계만족도

앞의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후동거의사에

따라 교환방식과 만족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세대별 교환척도와 만족도간의 상관도와 형평성 인식과 상관도를 분석하였다(표 3). 그 결과는 노후동거의사에 따라 어머니집단의 교환이나 형평성과 만족도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발견하였다. 자녀들은 동거를 원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상관도가 높은 반면, 어머니들은 비동거를 원하는 경우에 자원교환과 만족도, 형평성 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수가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 집단에서 더 현저하여 노후 동거를 원하는 집단에서 자원교환과 만족도, 형평성 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노후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약하다. 이는 노후동거를 원하는 어머니집단에서 현재의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이 많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동거를 원하는 어머니 집단에서의 두 변수간의 상관도가 약한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상관도분석을 통한 결과분석은 두 변수만의 관계를 통한 것이므로 제 3의 요인

표 3. 세대별, 노후 동거의사에 따른 관계 만족도와 교환척도의 상관관계수

	교환척도		구체적 자원교환		상징적 자원교환		형평성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자녀 (사례수)	.479** (213)	.494** (387)	.403** (213)	.409** (387)	.457** (213)	.475** (387)	.039 (213)	.134** (387)
어머니 (사례수)	.546** (553)	.464** (47)	.466** (553)	.398** (47)	.527** (553)	.440** (47)	.166** (553)	.041 (47)

\*\* p<.01

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다. 현재의 교환방식을 통제한 이후에 현재의 형평성 인식이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니면 동거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형평성을 달성하여 현재의 교환방식과 만족도가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교환방식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노후동거의사의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후동거의사의 차별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모형 1(그림 6)과 모형 2(그림 7: 모형 1에 노후부양의사가 추가된 모형)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만족도를 인구학적 변수와 6개 범주의 통합 자원교환척도, 교환 형평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입력방식으로 모형(연구모형 1)에 포함시킨 회귀분석 결과(표 4), 어머니의 경우에는 통합교환척도와 교환 형평성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반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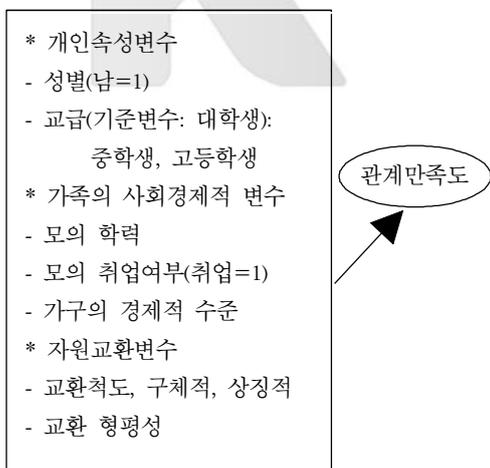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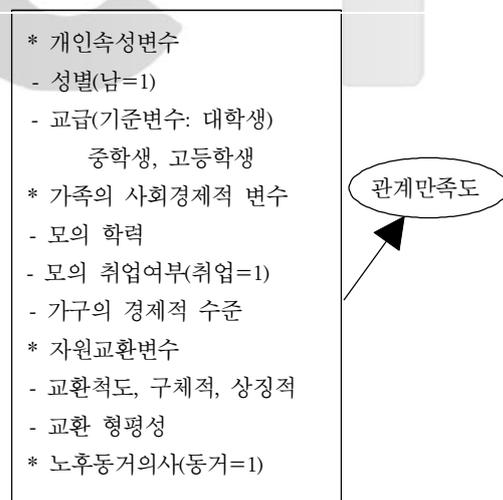


그림 7. 연구모형 2

녀들의 관계만족도는 교환 형평성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모형 2에 추가된 노후부양의사는 어머니의 관계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의 관계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어머니 집단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표 4), 딸을 둔 어머니들의 관계만족도가 더 높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관계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들(이주연, 정혜정, 2003; 임춘희, 1988; Rossi & Rossi, 1990; Shehan & Dwyer, 198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녀간에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경향

이 강하고, 모녀가 결속력이 강한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기존연구(이영숙, 고성혜, 1994; Steinberg and Silverberg, 1987)에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가족 결속력이 다르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통합교환척도가 관계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며, 형평성 정도도 관계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교환되는 자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환관계라도 노후 동거의사에 따라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 2를 만들어 검증한 결과, 노후 동거의사가 관

표 4. 세대별 관계만족도 영향요인: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어머니		자녀		동거희망집단		비동거희망집단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자녀의 속성변수]								
성별	-.090*	-.096***	.075**	.069*	.078*	-.141	.059	-.092**
교급-중학생	.091**	.090**	.044	.042	-.056	.102	.230***	.082*
교급-고등학생	.047	.048	.019	.018	-.036	.122	.111	.048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모의 학력변수	.012	.014	.000	.001	-.001	-.242*	.020	.025
모의 취업여부(더미)	.020	.018	.008	.006	-.027	.157	.075	.011
가구의 경제적 수준	-.035	-.035	-.040	-.039	-.050	-.319**	-.020	-.015
[교환관계변수]								
교환척도 평균	.517***	.521***	.525***	.512***	.526***	.394***	.513***	.526***
교환 형평성	.116***	.122***	.043	.043	.058	.037	-.009	.130***
노후동거의향		.081*		.047				
F (sig.)	34.326***	31.374***	27.815***	24.934***	17.567***	3.535***	9.112***	33.338***
Adj. R <sup>2</sup>	.317	.324	.280	.282	.278	.427	.268	.329
사례수	600	600	582	582	374	47	208	553

\* p<.10 \*\* p<.05 \*\*\* p<.01

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노후부양을 통해 호혜성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의 교환을 경험하더라도 현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노후동거의사가 교환된 자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변화시킬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노후동거의사의 보다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한 후 다시 회귀분석을 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경우, 현재의 교환형평성 인식이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만 동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교환형평성 인식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관계만족도는 교환되는 자원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는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 주어지는 자원이 적다면 관계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자원이 적어서 관계만족도가 낮을지라도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받는 낮은 자원의 수혜로 인한 낮은 관계만족도는 상당부분 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노후동거의사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교환방식과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현재의 형평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녀로부터 노후에 부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어머

니들은 현재의 형평성 인식에서 나에게 유리한 경우에 관계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동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처럼, 현재 관계의 형평성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노후에 부양받을 것을 기대하므로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자녀집단(표 4)은 성별과 통합교환척도는 자녀의 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의 교급이나 교환형평성은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는 노후동거의사와 관계없이 자원교환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교환정도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개인의 속성 변수에서만 만족도와 관련성이 드러났다. 어머니집단과 마찬가지로 노후동거를 원하지 않는 자녀들은 중학생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영향은 어머니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자녀집단에서는 아들이 더 만족도가 높는데 비해 어머니 집단에서는 딸을 둔 어머니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표현적인 딸을 통해 어머니는 관계만족도가 높다고 느끼지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아들 자신들은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좋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자녀집단에서는 노후동거의사의 조절변수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자녀간 관계만족도는 이번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의해 어머니는 32%, 자녀는 28% 설명되었다.

#### 구체적 자원의 교환과 형평성, 관계만족도

구체적 자원의 교환과 관계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이는 6개 자원범주의 통합척도를 이용하여 어

표 5. 세대별 관계만족도 영향요인: 구체적 자원교환

	어머니		자녀		동거희망집단		비동거희망집단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자녀의 속성변수]								
성별	-.131***	-.138***	.072*	.061	.074	-.130	.048	-.138***
교급-중학생	.083*	.082*	.020	.017	-.083	.077	.200*	.075*
교급-고등학생	.026	.027	-.006	-.007	-.065	.136	.092	.024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모의 학력변수	-.002	.000	-.005	-.002	.004	-.246*	-.004	.012
모의 취업여부(더미)	.014	.012	.025	.020	.004	.196	.789	.003
가구의 경제적 수준	-.028	-.028	-.004	-.003	-.007	-.311**	.007	-.009
[교환관계변수]								
구체적 자원 교환척도 평균	.436***	.440***	.420***	.400***	.411***	.292**	.411***	.444***
교환 형평성	.118***	.123***	.058	.059	.071	.048	.013	.130***
노후동거의향		.077**		.085**				
F (sig.)	24.220***	22.178***	16.631***	15.413***	10.102***	2.738**	5.587***	23.561***
Adj. R <sup>2</sup>	.247	.253	.188	.195	.181	.366	.183	.257
사례수	600	600	582	582	374	47	208	553

\* p<.10 \*\* p<.05 \*\*\* p<.01

어머니와 자녀간 관계만족도를 설명하였던 방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자녀와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딸을 둔 어머니의 관계만족도가 높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계만족도가 높다.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 교환관계와 관련된 독립변수 즉 구체적 자원의 교환정도와 형평성 인식이 모두 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구체적 자원교환과 교환 형평성 변수이외에 노후 자녀와의 동거 의사를 추가하였을 때, 기존의 구체적 자원의 교환수준과 형평성 수준의 영향이 변화하지 않고 다만 추가된 노후동거의사

의 변수가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동거의사의 조절변수적 효과를 보기 위해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앞의 통합척도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다시 해석하지 않으나 구체적 자원교환과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노후동거의사에 의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들의 경우, 모형 1에서는 어머니와 관계만족도가 높는데 비해 모형 2에서처럼 노후동거의사에 관한 변수가 추가되면 어머니와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진다. 자녀들은 현재의 형

평성수준이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로한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현재 어머니와 더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였다.

노후에 자녀(부모)와의 동거희망을 조건으로 어머니와 자녀간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집단과 어머니집단에서 설명력을 갖는 변수들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자녀집단에서는 현재의 구체적인 자원교환의 수준에 의해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결정된다. 연로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려는 집단에서 중학생 자녀들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사례수가 매우 적다. 47명의 어머니만이 자녀와 노후에 동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귀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어머니의 학력이 낮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자녀로부터 구체적인 자원을 많이 받는다는 어머니들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번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자원을 자녀로부터 받는 부모들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할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자녀가 딸인 경우와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에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환 형평성이 어머니에게 유리한 경우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았다.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의 경우에는 노후동거의사가 앞에서 분석한 통합교환척도와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방식으

로 작용하고 있다. 노후동거의사에 의해 관계만족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노후동거의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노후동거의사가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현재의 형평성 인식에 의해 관계만족도가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는 동거희망집단과 동거를 원하지 않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체적 자원교환과 관련된 관계만족도에 노후동거의사는 아무런 차별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환방식이 관계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로부터 많은 구체적 자원을 부여받으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 상징적 자원의 교환과 형평성, 관계만족도

비교적 현재의 시점에서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의 소유가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징적 자원의 교환수준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회귀분석 결과(표 6), 구체적 자원교환에서 발견된 경향과 거의 유사하나, 자녀의 어머니와 관계만족도에 자녀의 부모와 노후동거의사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통합교환척도와 구체적인 자원교환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관련성 경향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자녀와 노후에 동거를 원하는 어머니 집단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자녀와 노후에 동거를 원하는 어머니의 사례가 너무 적어서, 적을 사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 6. 세대별 관계만족도 영향요인: 상징적 자원교환

	어머니		자녀		동거희망집단		비동거희망집단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자녀의 속성변수]								
성별	-.078**	-.085**	.063*	.057	.061	-.154	.048	-.078**
교급-중학생	.089**	.088**	.055	.052	-.033	.112	.216***	.080*
교급-고등학생	.049	.050	.028	.026	-.018	.122	.103	.051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모의 학력변수	.022	.024	.009	.010	.008	-.251	.032	.037
모의 취업여부(더미)	.032	.030	.013	.010	-.030	.164	.094	.022
가구의 경제적 수준	-.049	-.048	-.059	-.057	-.066	-.339**	-.043	-.028
[교환관계변수]								
비물질적 자원교환척도 평균	.501***	.505***	.515***	.501***	.519***	.402***	.495***	.511***
교환 형평성	.126***	.131***	.056	.056	.074	.004	.000	.141***
노후동거의향		.075**		.060				
F (sig.)	31.692***	28.867***	26.704***	24.097***	17.112***	3.653***	8.361***	30.662***
Adj. R <sup>2</sup>	.300	.306	.272	.275	.273	.435	.252	.311
사례수	600	600	582	582	374	47	208	553

\* p<.10 \*\* p<.05 \*\*\* p<.01

러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자녀집단의 모형 2, 즉 노후에 부모와 동거할 의사여부를 묻는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는 구체적 자원교환수준이 투입된 회귀분석 결과와는 달리 상징적 자원교환수준과 노후동거의사를 동시에 고려하면 노후동거의사와 관계만족도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환척도의 회귀분석과 유사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노후동거의사가 현재의 상징적 교환방식과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결론 및 논의

교환이론이나 형평성이론은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며, 상대방에게 준 것은 무엇인지를 따진다. 내가 준 것에 비해 적게 받았거나,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의 비율이 상대방이 받은 것과 준 것의 비율과 유사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과거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핵가족이 진행되

면서 자녀의 정서적인 자원이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교환자원으로 작용함을 발견하고, 장기간에 걸친 교환관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교환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엘킨드, 1999; Skolnick, 1979; Zellizer, 1985).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자율성의 범위가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교환방식에 있어서도 어린 자녀와는 달리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Collins & Repinski, 1994; Lolis & Kuczynski, 1997; Manke & Plomin, 1997; Noller,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의 소유가 적고, 한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들의 자율성의 확장이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현재 시점에서의 교환관계는 부모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는 형태로 불균형적으로 지속되지만 이러한 교환방식을 성인이 된 이후에 형평성 또는 호혜성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의 수혜와 관계만족도간의 관련성이 노후의 부양의사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번 연구는 우선 부모와 자녀간에 있어서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교환이 관계만족도를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교환간 균형을 이루는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지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현재의 부모와 자녀간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자원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방식의 교환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일원변량분석과 곡선적합성 검증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

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족도는 형평성보다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평가할 때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는 형평성수준보다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원에 더 한정하여 관계만족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로부터 받은 자원의 양이 많을 때 관계만족도가 높고,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더 많은 자원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때 더 관계만족도가 높다. 부모자녀관계의 전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어져왔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자녀보다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들이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부모자녀관계의 전형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원이 부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현재의 교환방식에서 부모(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러한 불균형은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보상하고 균형화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형평성 유지에 대한 기대로 인해 현재의 불균형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이 현재의 관계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자녀들은 형평성의 원리보다는 더 많은 자원을 수혜하면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노후동거의사가 교환방식과 관계만족도의 관련성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조절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녀의 경우에는 노후동거의사나 형평성 수준이 현재의 관계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노후 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들은 노후동거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원이 많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진 지금, 현재의 교환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의 불공평한 교환관계를 부모가 연로한 이후에 부양을 통해 공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회귀분석결과는 보면 어머니들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면 현재의 관계만족도가 높다. 이는 동거를 희망하는 어머니들의 교환적도의 평균만족도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교환적도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노후동거의사가 현재의 형평성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인 자원의 교환수준과 만족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환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생애주기의 후반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현재의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만족하도록 만든다. 특히 상징적 자원의 교환에서는 자녀와 어머니간의 평균차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자원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징적 자원의 교환수준을 통제이후에도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노후부양의사가 현재의 관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관계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어머니는 딸을 둔 경우에 관계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녀는 남자인 경우에 관계만족도가 높다. 자녀의 성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자녀의 성에 따른 표현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딸은 상대적으로 표현을 자유롭게 하므로 이를 기초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아들은 자신의 구체적, 상징적 자원의 교환형태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들이 아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 있으나, 정작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아들은 어머니와 관계에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사이에도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원이 많을 때 그 관계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어머니들은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노후에 동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은 자원을 받고 있는 어머니들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현재의 형평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 부모자녀 관계가 의무와 책임으로 전개되지 않고, 호혜성 내지는 공리적인 교환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들은 노후동거의사에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많은 자원을 수혜하였을 때 관계만족도가 높고, 어머니들은 자녀와 미래에 동거하지 않는다면 현재에 자녀로부터 많은 자원을 수혜하고, 현재의 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형평성을 인지할 때 관계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들은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니다. 교환관계를 제

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2자간에 주는 자원과 받는 자원 모두를 측정하는 것이 형평성 개념에 더 적합하지만 자녀와 어머니 집단을 동일 가족 구성원으로 표집 하는 것이 어려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자원에 한정된 평가를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모자녀의 만족도에 관련되는 영역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자원의 교환에 한정하여 관계만족도를 분석하였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그러나 자원의 교환척도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로서는 매우 크며, 한정된 지면의 연구에서 모든 관련변인을 다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하면 교환관계에 의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대한 예측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관계와 달리 호혜성이나 교환의 원리에 의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자녀에 대해 통제를 가지고 심지어 체벌을 하여도 이는 기본적인 부모자녀간의 신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들도 있다. 그러한 견해에 비해 체벌은 어디까지나 체벌로 부정적인 자원의 교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번 연구는 시작되었다. 유교적 특성을 지니고,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았던 한국사회에서도 자원교환방식에 의한, 그것도 형평성이 아닌 공리적 교환방식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노후동거의사의 조절효과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공리적 교환방식이 만족도 결정에 가장 우세한 변수란 것을 발견한 것도 이번 연구의 의의이다.

## 참고문헌

- 김경신 (1998). 가족 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명자, 안선영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양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순기, 유영주 (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계학회지, 13(4), 125-137.
- 김윤정, 공인숙, 이주리, 민하영, 이점숙 (2004).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와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부모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01-709.
- 김윤정, 이창식 (200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노후 피부양관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3), 65-82.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자기 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변경화 (1999). 부모자녀관계만족도와 부모교육요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소영, 김명자 (1998).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신화용, 조병은 (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 본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대가, 보상, 관계의 질 - 한국과 재미교포 자녀의 비교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54-174.
- 윤순덕, 한경혜 (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윤현숙 (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자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엘킨드, 데이비드 (1999). 이동원 외 번역, 변화하는 가족: 새로운 유대와 불균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숙현, 송승영 (1992)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26, 145-164.
- 이여봉, 이미정 (2003).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5(1).
- 이영숙, 고성혜, 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주연, 정혜정 (2003).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3.
- 임인혜 (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춘희 (1988).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정, 서병숙, 1998, "3세대 가족 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70-193.
- 조병은, 신화용 (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23(3), 161-176.
- 조윤주, 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부양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한경혜, 윤성은 (2002). 한국 성인남녀의 부양지원 제공 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65-73.
- 한국청소년학회 (1999). 청소년학 총론. 양서원
- 현운강 (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Berkowitz, L.(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Ambry, M. K. (1992). Childless Dances. *American Demographics* 14:55.
- Bronfenbrenner, U. (1970).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Montemayor, R., Adams, G.R., and Gullotta, T.P.(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Thousand Oaks, CA: Sage.
- DeWitt. P. M. (1992). In Pursuit of Pregnancy. *American Demographics*. 15: 48-53.
- Foa, U. G. (1973). Interpersonal and Economic Resources. *Science*. 171, 345-351. reprinted in 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1-30.
- Hatfield, E., Traupmann, J., Sprecher, S., Utne,

- M., and Hay, J. (1985). Equity and Intimate Relations: Recent Research, in Ickes, W.(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 New York: Springer-Verlag.
- Hoffman, L. W. and J. D. Manis.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Homans, G. (1950).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lein, D. M., and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Lamanna, M. A. (1977). The Value of Children to Natural and Adoptive Parents. Ph.D. dissertation. Dept. of Sociology, University of Notre Dame.
- Lollis, S., and Kuczynski, L. (1997). Beyond one Hand Clapping: Seeing Bidirectionality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 14: 441-461.
- Manke, B. and Plomin, R. (1997). Adolescent Familial Interactions: A Genetic Extension of the Social Relations Model.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 14: 502-522.
- Noller, P. (1994). Relationships with Parents in Adolescence: Process and Outcome, in Montemayor, R., Adams, G. R., and Gullotta, T. P.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Thousand Oaks, CA: Sage.
- Peterson, G. W. (1986). Family Conceptual Framework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Leigh, G. K. and Peterson, G. W. (eds.). *Adolescents in Families*. Cincinnati, OH: South-Western.
- Retiig, K.D., Danes, S.M., and Bauer, J.W. (1993).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Family Life Quality Among Economically Stressed Farm Families, in Foa, U.G., Converse, Jr., J., Törnblom, K.Y., and Foa, E.B.(eds.)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123-155.
- Roloff, M.E. (198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Social Exchange Approach*. Beverly Hills, CA: Sage.
- Roloff, M. E. (1987). Communication and Reciprocity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M. E. Roloff and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Rossi, A. S. and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Rubin, Z. (1972).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hehan, C. L. and Dwyer, J. W. (1989). Parent-child Exchange in the Middle Years' Attachment and Autonomy in Transition to Parenthood. In J.A. Mancini(Ed.). 99-113.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Skolnick, A. (1979). *The Intimate Environment: Exploring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 MASS: Little, Brown Company, 126-130.
- Steffensmeier, R. (1982). A Role Model of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

- Steinberg, L. and Silverberg, S. B. (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51-760.
- Sprecher, S. and Schwartz, P. (1994) Equity and Balance in the Exchange of Con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Lerner, Melvin J. and Gerold Mikula (eds)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Justice in Close Relationship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Walster, E., Walster, G.W. and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MA; Allyn and Bacon.
- Zelizer, Viviana K. (1985).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New York: Basic Books.

K C I

## Resource exchanges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child and their relational satisfaction: in the condition of living together with aged parents

**Hyunju Kim**

Department of Youth Studies, Chung-Ang University

According to exchange theory and resource theory, I measured exchanged resources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children. Based on the exchanged resources between them, I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relational satisfaction. The sample was consisted with middle,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who did not serve in military and under the age 24, and the mothers who lived with the adolescent children having the same criteria described above. Total sample cases were 600 children and 600 mothers. Relation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exchange principle rather than equity principle. Children and mothers both were satisfied if they received more from the other. Expectation of living together with aged parents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satisfaction for mothers, however, not for children. Mothers who wanted to liv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in the old age, had received less from the children than those who did not want to live with the child had. Mothers who wanted to live with the child expected to reach the long-term equity, so that the present equity perception did not influence seriously the satisfaction. For mothers who did not want to live with the child in the old age, however, the present equity perception which was favorable for them was important to their satisfaction. Expectation of living together with the child had a moderating effect on mother's satisfaction, but not for the child's satisfaction. Children's satisfaction was more likely affected by the present exchange pattern and the present equity perception than the long-term equity.

*key words* : resource exchange, adolescent child, mother, relational satisfaction, living together with aged parents.

1차 원고접수: 2005. 11. 19.

심사통과접수: 2005. 12. 19.

최종원고접수: 2005. 12. 29.

부록 1. 대응표본에서의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자녀와 어머니의 평균비교

전체집단					
	만족도	교환척도	구체적 자원교환	상징적 자원교환	형평성
자녀	5.48	2.88	2.90	2.86	2.96
어머니	5.27	2.93	2.87	2.99	3.34
상관계수	.485***	.442***	.202*	.472***	-.012
t-value	2.274*	-1.989*	.737	-4.073***	-3.169**
자유도	149	149	149	149	149
자녀값-어머니 값의 평균(표준편차)	.2067 (1.1131)	-.0540 (.3323)	.0249 (.4129)	-.1230 (.3698)	-.3800 (1.4686)
자녀가 동거를 희망하지 않은 집단					
자녀	5.28	2.78	2.80	2.77	2.93
어머니	5.12	2.88	2.84	2.92	3.14
상관계수	.458***	.590***	.212	.687***	.050
t-value	1.040	-2.448*	-.662	-3.821***	-1.205
자유도	56	56	56	56	56
자녀값-어머니 값의 평균(표준편차)	.1579 (1.1463)	-.0967 (.2981)	-.0376 (.4287)	-.1481 (.2927)	-.2105 (1.3193)
자녀가 동거를 희망하는 집단					
자녀	5.60	2.94	2.96	2.92	2.98
어머니	5.37	2.97	2.89	3.03	3.46
상관계수	.491***	.308**	1.75+	.293**	-.048
t-value	2.079*	-.764	1.520	-2.525*	-3.009**
자유도	92	92	92	92	92
자녀값-어머니 값의 평균(표준편차)	.2366 (1.0974)	-.0278 (.3506)	.0631 (.4004)	-.1075 (.4107)	-.4839 (1.5507)
어머니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집단					
자녀	5.50	2.88	2.90	2.86	2.96
어머니	5.28	2.94	2.88	2.99	3.34
상관계수	.484***	.436***	.198*	.460***	-.044
t-value	2.271*	-1.898+	.705	-3.820***	-2.870**
자유도	132	132	132	132	132
자녀값-어머니 값의 평균(표준편차)	.2256 (1.1456)	-.0562 (.3413)	.0255 (.4174)	-.1274 (.3846)	-.3759 (1.5106)
어머니가 동거를 희망하는 집단#					
자녀	5.29	2.87	2.85	2.89	2.94
어머니	5.24	2.91	2.83	2.98	3.35
상관계수	.522*	.622***	.243	.740***	.304
t-value	.293	-.584	.211	-1.600	-1.514
자유도	16	16	16	16	16
자녀값-어머니 값의 평균(표준편차)	.0588 (.8269)	-.0367 (.2591)	.0199 (.3877)	-.0882 (.2274)	-.4118 (1.1213)

\* p<.05, \*\* p<.01, \*\*\* p<.001

부록2. 대응표본에서 세대별, 노후동거의사별 관계만족도

	어머니		자녀		동거희망집단		비동거희망집단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자녀의 속성변수]								
성별	-.162**	-.170**	-.005	-.021	.040		-.158	-.185
교급-중학생	.035	.002	-.018	.051	-.193		.139	.021
교급-고등학생	.054	.040	.038	.017	-.085		.119	.024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모의 학력변수	-.004	.004	-.031	-.005	.019		.016	.010
모의 취업여부(더미)	.247***	.248***	.152	.153*	.176		.157	.246***
가구의 경제적 수준	-.037	.051	.076	.086	.151		-.072	-.019
[교환관계변수]								
자녀의 교환척도- 어머니의 교환척도#	-.177**	-.203**	.208**	.189**	.163		.171**	-.154*
자녀의 교환 형평성 - 어머니의 교환형평성#	-.110	-.095	.028	-.018	.063		-.165	-.127
노후동거의향		.145*		.130				
F (sig.)	2.709***	2.788***	1.557	1.653	1.374		.907	2.173**
Adj. R <sup>2</sup>	.084	.097	.029	.038	.032		-.014	.066
사례수	150	150	150	150	93	17	57	133

\* p<.01 \*\* p<.05 \*\*\* p<.01

# 자녀의 척도값에서 어머니의 척도값을 뺀 값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경우는 회귀계수가 +인 것은 자신이 많이 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회귀계수가 -값을 가져야 자신이 많이 받아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이다.